北 해킹 이메일 예시 내용

- 악성파일 2017년 북 신년사 분석.hwp 전문

2017년 「北 신년사」 분석

2017. 1. 1(일)

통일부

< 첫 페이지 >

- 고위급 접촉 등 당국간 회담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이 없는바, 올해도 민간 차원의 접촉을 통한 '대남 흔들기' 강화 전망

⑤ 대외분야에서는 구체적 제안 없이 미국의 핵위협이 계속되는 한 선제공격 능력을 강화할 것임을 언급하며 핵능력에 대한 자신감 표출

o 美 대선 및 트럼프 정부에 대한 언급을 삼가며 구체적 대외정책 전략은 밝히지 않았으나,

- 과거 신년사에 없었던 '선제공격능력'을 추가, 핵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하면서 향후 한미군사훈련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응해나가겠다는 점을 시사

- 향후 상황을 관망하며 대화 제의 등의 가능성 불배제

o '자주·친선·평화'를 강조하며 우호적 국가와의 관계발전을 언급, 제재에도 불구하고 대외적 고립을 탈피하겠다는 의지 강조

- 5 -

붙임 ① '16년 및 '17년 주요과업 비교
* 더블클릭 하시면 한글문서로 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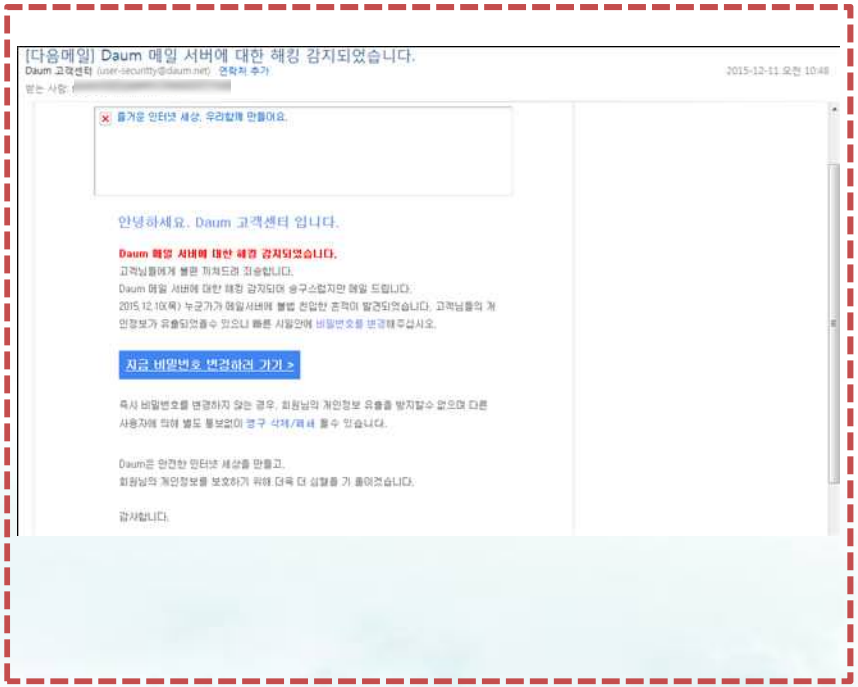
② '16년 및 '17년 대남분야 비교

< 마지막 페이지 '링크' 모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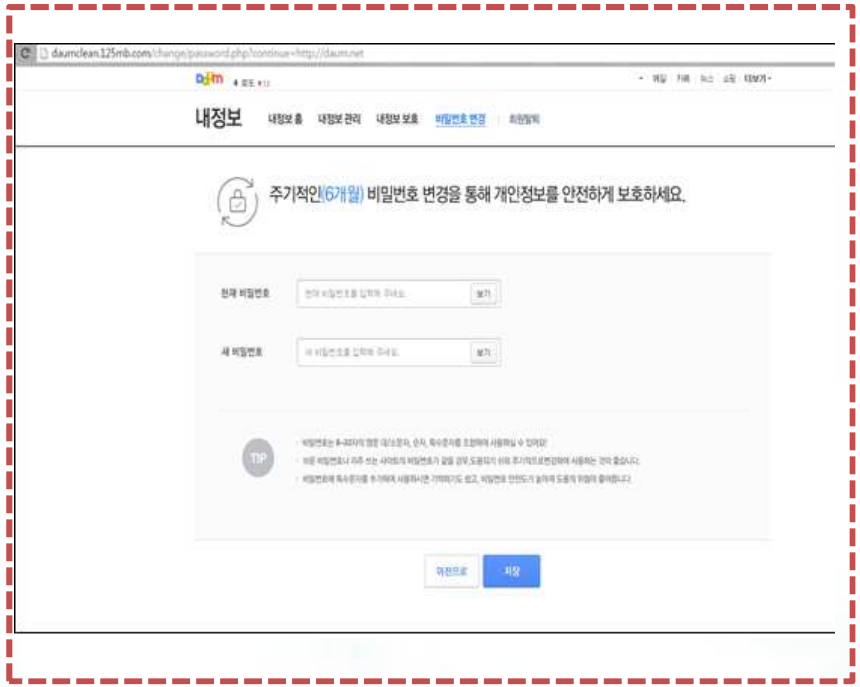
北 해킹 이메일 예시 내용

포털업체 사칭 이메일 예시

- 다음 관리자 사칭 피싱메일



- 피싱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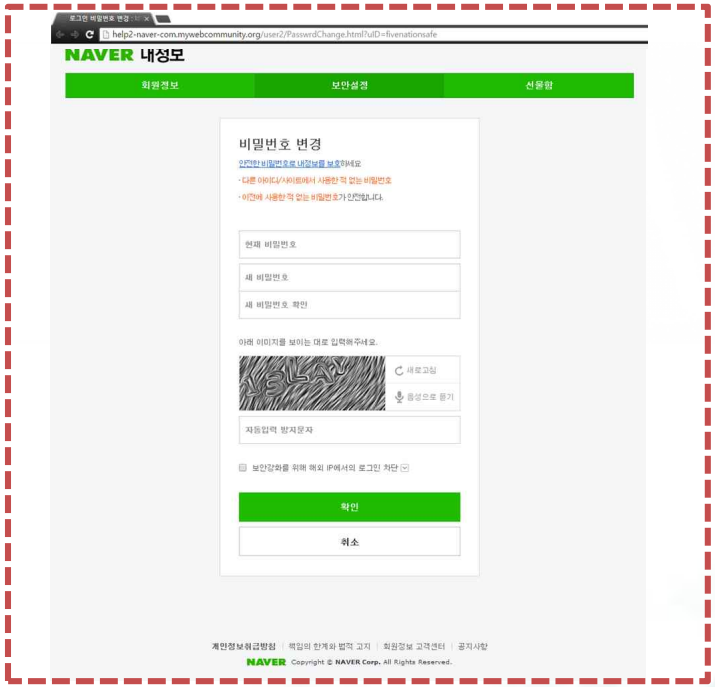


北 해킹 이메일 예시 내용

포털업체 사칭 이메일 예시

● 네이버 관리자 사칭 피싱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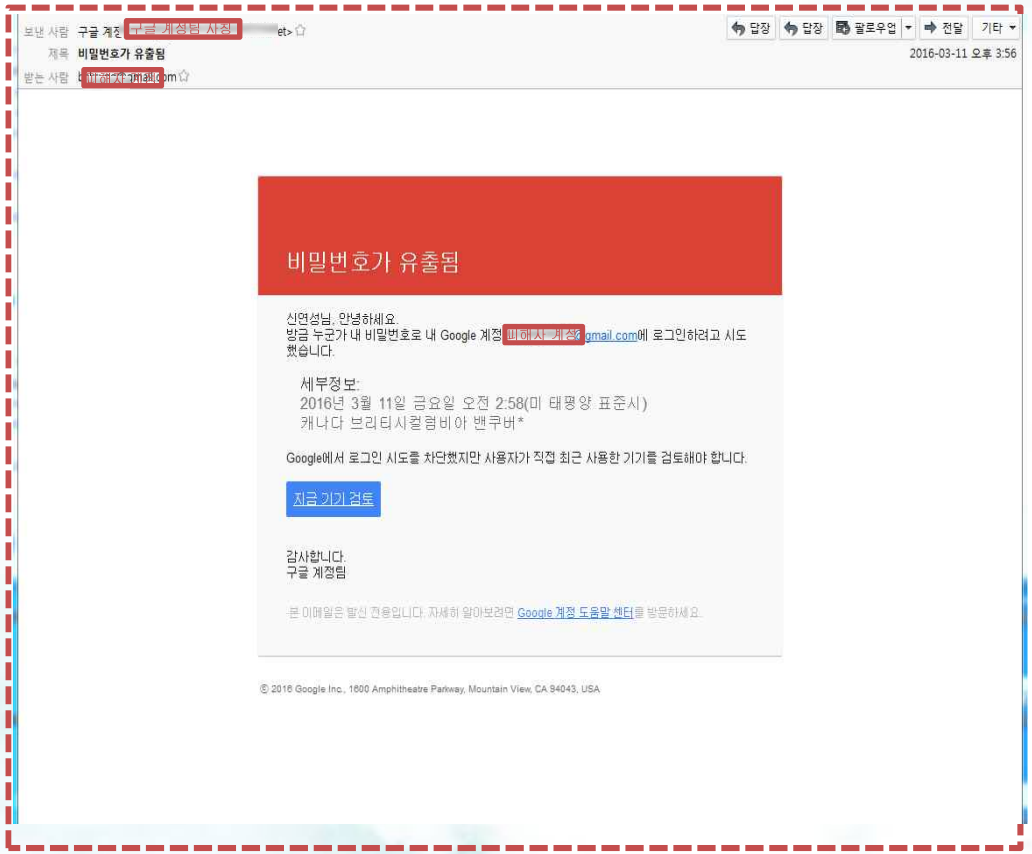
● 피싱사이트



北 해킹 이메일 예시 내용

포털업체 사칭 이메일 예시

● 구글 관리자 사칭 피싱 메일



보낸 사람 구글 계정팀 사칭 et>
제목 비밀번호가 유출됨
받는 사람 [redacted]om

답장 답장 팔로우업 전달 기타
2016-03-11 오후 3:56

비밀번호가 유출됨

신연성님, 안녕하세요.
방금 누군가 내 비밀번호로 내 Google 계정 [redacted]gmail.com에 로그인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세부정보:
2016년 3월 11일 금요일 오전 2:58(미 태평양 표준시)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밴쿠버*

Google에서 로그인 시도를 차단했지만 사용자가 직접 최근 사용한 기기를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 기기 검토

감사합니다.
구글 계정팀

본 이메일은 발신 전용입니다. 자세히 알아보려면 Google 계정 도움말 센터를 방문하세요.

© 2016 Google Inc., 1600 Amphitheatre Parkway, Mountain View, CA 94043, USA

北 해킹 이메일 예시 내용

국제기구 사칭 이메일 예시

- **UN 사칭 악성파일 유포 메일**

보낸 사람 Franz Kolar <sc-1540 UN정보 사칭 daum.net> ☆ 답장 답장 팔로우업 전달 기타

제목 Informal list of 1540 related events dated 24 Novemer 2015 2015-11-26 오후 4:59

받는 사람 UN 근무자 : 모두 표시(19 건)

Dear all,

Please, find attached the updated version of the list dated 24 November 2015. For your convenience, new information is highlighted in GREEN.

Best regards,

Franz Kolar
Support to the Committee established
pursuant to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40 (2004)

Weapons of Mass Destruction Branch
UN Office for Disarmament Affairs

UN Secretariat
Room S-3152
New York, NY, 10017
Tel: +1 212 963 7618
Email: kolar@un.org

첨부 파일: 1540EventListv5224112015 fdp.SCR 396 KB 저장

北 해킹 이메일 예시 내용

국제기구 사칭 이메일 예시

- **UN 사칭 악성파일 유포 메일**

For Information: NOP- AU preparatory meeting on assistance (Vienna, 24-25 Sept) (NOTE.195/Add.1) - 메시지 (HTML)

파일 메시지

보낸 사람: sc-1540-[redacted]@daum.net
보낸 날짜: 2015-09-23 (수) 오후 12:01
받는 사람: k[redacted]@state.gov
참조:
제목: For Information: NOP- AU preparatory meeting on assistance (Vienna, 24-25 Sept) (NOTE.195/Add.1)

메시지 note.195-Add1-NOP-AU prep mtg on assistance (Vienna, 24-25 Sep) (17 Sep 2015).pdf (376 KB)

Dear Members of the 1540 Committee,

Please find attached **S/AC.44/2015/NOTE.195/Add.1**, which is also available through: https://eroom.un.org/eRoom/facility/1540CommitteeDocuments/0_24c76.

Regards,
Simone Wray
(212) 963-2487

Note by the Chair

The Chair of the Security Council Committee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1540 (2004) presents his compliments to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and has the honour to transmit, **for their information**, a revised agenda and a mission proposal from the African Union addressed to the Chair inviting the Committee to participate in a preparatory meeting regarding an Assistance Conference it intends to convene in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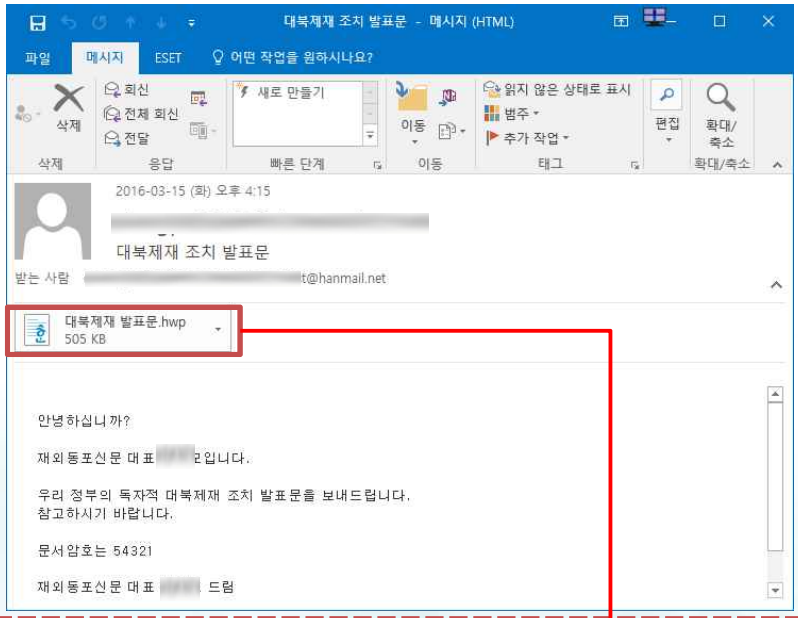
This e-mail and any files transmitted with it are confidential and intended solely for the use of the individual or entity to whom they are addressed. If you are not the intended recipient, you should not disseminate, distribute, copy or take any action in reliance on the contents of this e-mail.

Sc-[redac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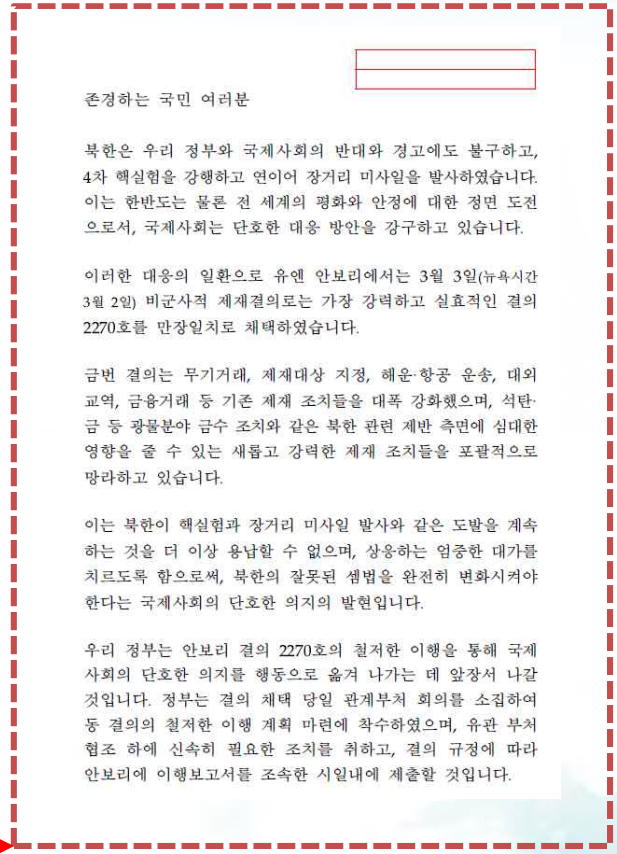
北 해킹 이메일 예시 내용

언론사 사칭 이메일 예시

재외동포신문 사칭 메일



첨부파일 내용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4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연이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였습니다. 이는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서, 국제사회는 단호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의 일환으로 유엔 안보리에서는 3월 3일(뉴욕시간 3월 2일) 비군사적 제재결의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결의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금번 결의는 무기거래, 제재대상 지정, 해운·항공 운송, 대외교역, 금융거래 등 기존 제재 조치들을 대폭 강화했으며, 석탄·금 등 광물분야 금수 조치와 같은 북한 관련 제반 측면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롭고 강력한 제재 조치들을 포괄적으로 망라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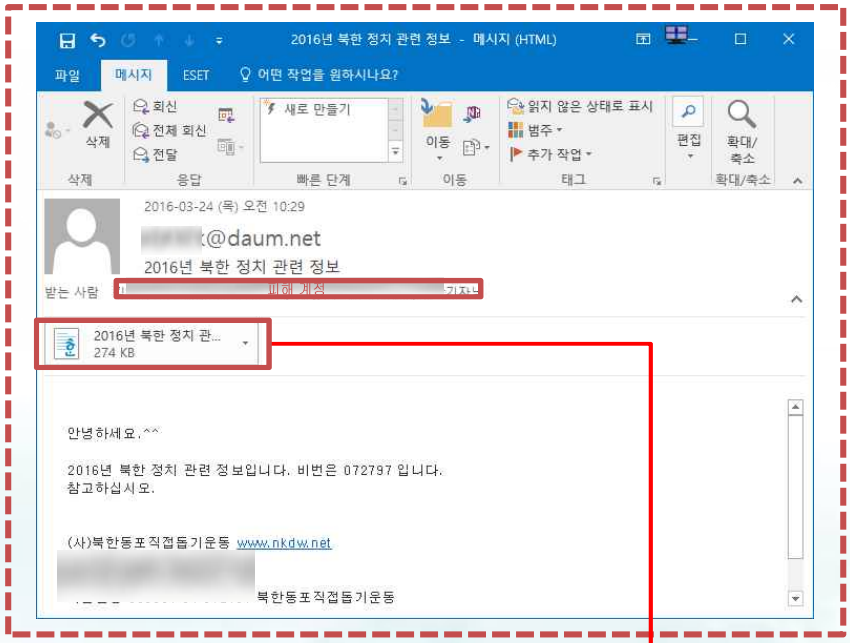
이는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을 계속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으며, 상응하는 엄중한 대가를 치르도록 함으로써, 북한의 잘못된 셈법을 완전히 변화시켜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의 발현입니다.

우리 정부는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행동으로 옮겨 나가는 데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결의 채택 당일 관계부처 회의를 소집하여 동 결의의 철저한 이행 계획 마련에 착수하였으며, 유관 부처 협조 하에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결의 규정에 따라 안보리에 이행보고서를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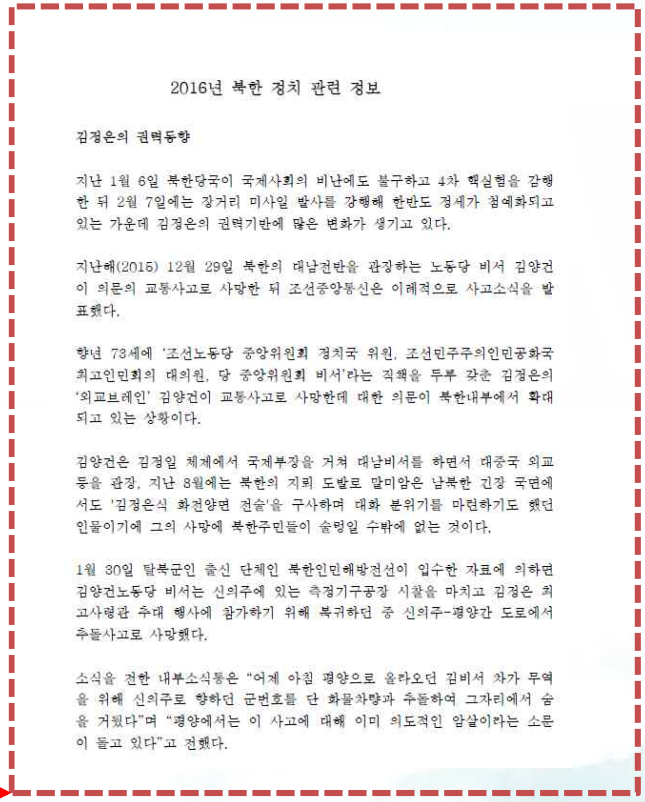
北 해킹 이메일 예시 내용

북한 관련단체 사칭 이메일 예시

(사)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사칭 메일



첨부파일 내용



2016년 북한 정치 관련 정보

김정은의 권력동향

지난 1월 6일 북한당국이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4차 핵실험을 감행한 뒤 2월 7일에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해 한반도 정세가 첨예화되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의 권력기반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

지난해(2015) 12월 29일 북한의 대남전반을 관장하는 노동당 비서 김양건이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조선중앙통신은 이례적으로 사고소식을 발표했다.

향년 73세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당 중앙위원회 비서'라는 직책을 두루 갖춘 김정은의 '외교브레인' 김양건이 교통사고로 사망한데 대한 의문이 북한내부에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양건은 김정일 체제에서 국제부장을 거쳐 대남비서를 하면서 대중국 외교 등을 관장, 지난 8월에는 북한의 지뢰 도발로 말미암은 남북한 긴장 국면에서도 '김정은식 화전양면 전술'을 구사하며 대화 분위기를 마련하기도 했던 인물이기에 그의 사망에 북한주민들이 술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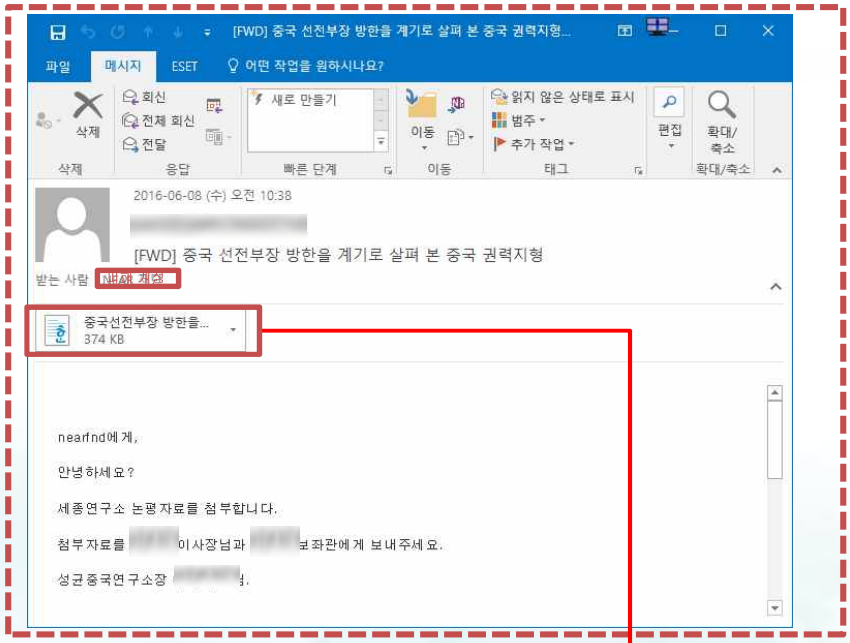
1월 30일 탈북군인 출신 단체인 북한인민해방전선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김양건노동당 비서는 신의주에 있는 측정기구공장 시찰을 마치고 김정은 최고사령관 주대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복귀하던 중 신의주-평양간 도로에서 추돌사고로 사망했다.

소식을 전한 내부소식통은 "어제 아침 평양으로 올라오던 김비서 차가 무역을 위해 신의주로 향하던 군번호를 단 화물차량과 추돌하여 그자리에서 숨을 거뒀다"며 "평양에서는 이 사고에 대해 이미 의도적인 암살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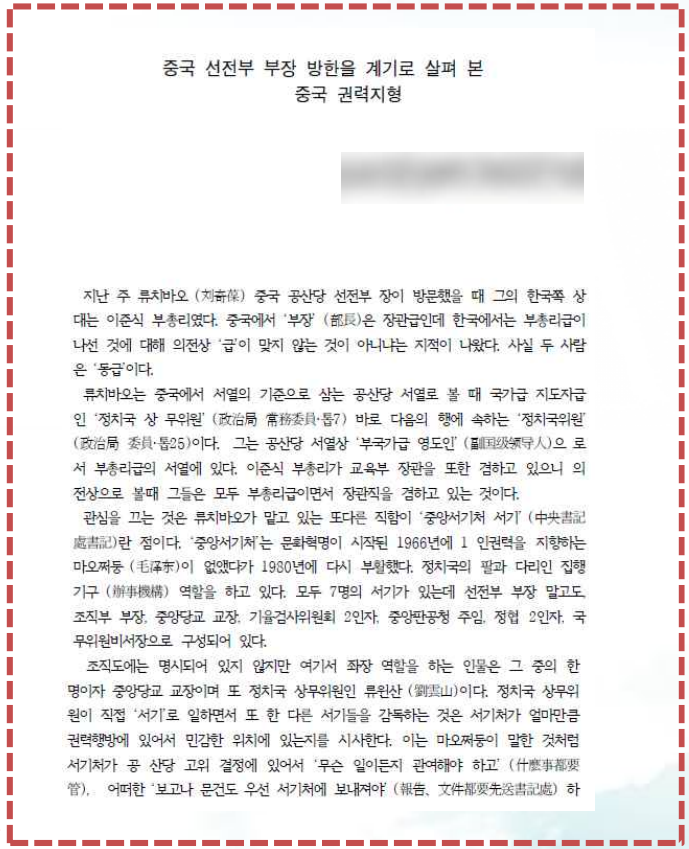
北 해킹 이메일 예시 내용

연구기관 사칭 이메일 예시

성균중국연구소 사칭 메일



첨부파일 내용



중국 선전부 부장 방한을 계기로 살펴 본
중국 권력지형

지난 주 류치바오 (刘奇葆) 중국 공산당 선전부 장이 방문했을 때 그의 한국쪽 상대는 이준식 부총리였다. 중국에서 '부장' (部長)은 장관급인데 한국에서는 부총리급이 나선 것에 대해 의전상 '급'이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사실 두 사람은 '동급'이다.

류치바오는 중국에서 서열의 기준으로 삼는 공산당 서열로 볼 때 국가급 지도자급인 '정치국 상 무위원' (政治局 常務委員·톱7) 바로 다음의 행에 속하는 '정치국위원' (政治局 委員·톱25)이다. 그는 공산당 서열상 '부국가급 영도인' (副国级领导人)으 로서 부총리급의 서열에 있다. 이준식 부총리가 교육부 장관을 또한 겸하고 있으니 의전상으로 볼때 그들은 모두 부총리급이면서 장관직을 겸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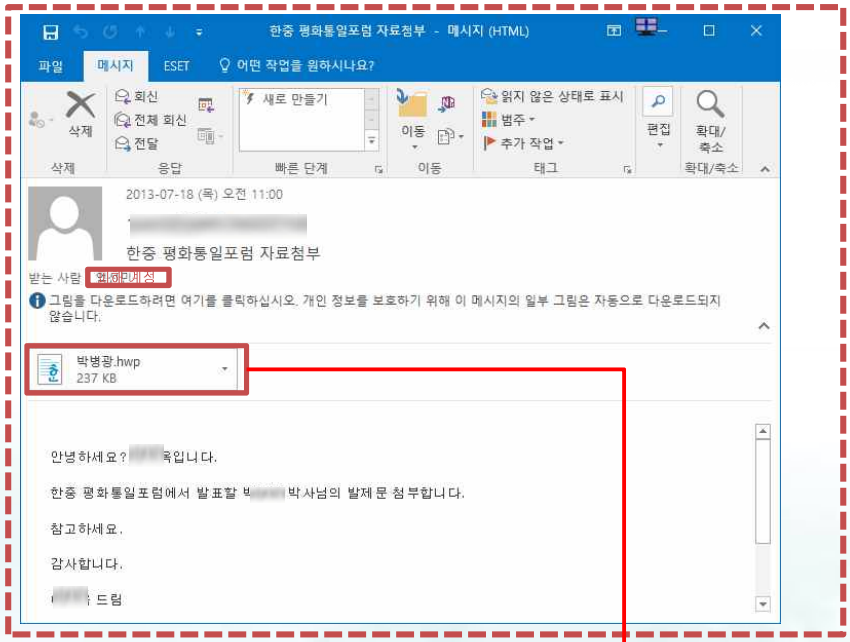
관심을 끄는 것은 류치바오가 맡고 있는 또다른 직함이 '중앙서기처 서기' (中央書記處書記)란 점이다. '중앙서기처'는 문화혁명이 시작된 1966년에 1 인권력을 지향하는 마오쩌둥 (毛澤东)이 없앴다가 1980년에 다시 부활했다. 정치국의 팔과 다리인 집행기구 (辦事機構) 역할을 하고 있다. 모두 7명의 서기가 있는데 선전부 부장 말고도 조직부 부장, 중앙당교 교장, 기율검사위원회 2인자, 중앙판공청 주임, 정협 2인자, 국무위원비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직도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서 좌장 역할을 하는 인물은 그 중의 한 명이자 중앙당교 교장이며 또 정치국 상무위원인 류윈산 (劉雲山)이다. 정치국 상무위원이 직접 '서기'로 일하면서 또 한 다른 서기들을 감독하는 것은 서기처가 얼마만큼 권력행방에 있어서 민감한 위치에 있는지를 시사한다. 이는 마오쩌둥이 말한 것처럼 서기처가 공 산당 고위 결정에 있어서 '무슨 일이든지 관여해야 하고' (什麼事都要管), 어떠한 '보고나 문건도 우선 서기처에 보내져야' (報告、文件都要先送書記處)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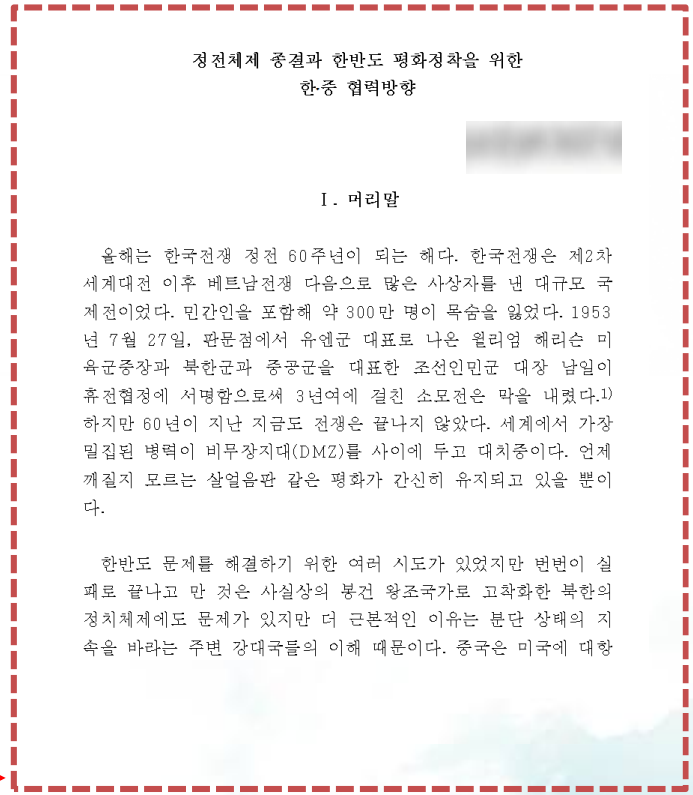
北 해킹 이메일 예시 내용

개인 사칭 이메일 예시

개인 사칭 메일



첨부파일 내용



정전체제 종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한·중 협력방향

Ⅰ. 머리말

올해는 한국전쟁 정전 60주년이 되는 해다. 한국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베트남전쟁 다음으로 많은 사상자를 낸 대규모 국제전이었다. 민간인을 포함해 약 30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유엔군 대표로 나온 윌리엄 해리슨 미 육군중장과 북한군과 중공군을 대표한 조선인민군 대장 남일이 휴전협정에 서명함으로써 3년여에 걸친 소모전은 막을 내렸다.1) 하지만 60년이 지난 지금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세계에서 가장 밀집된 병력이 비무장지대(DMZ)를 사이에 두고 대치중이다. 언제 깨질지 모르는 살얼음판 같은 평화가 간신히 유지되고 있을 뿐이다.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실패로 끝나고 만 것은 사실상의 봉건 왕조국가로 고착화한 북한의 정치체제에도 문제가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분단 상태의 지속을 바라는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에 대항